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전대성**

이주실***

〈目 次〉

- | | |
|------------------|-----------------|
| I. 서론 | IV. 실증분석결과 |
| II. 이론적 논의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III.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 |

〈요 약〉

국내에서 이주민들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내국인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수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정되어 연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국인들과 이주민들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의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교모임, 문화단체, 기타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 연계형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동창모임이나 친목단체 같은 결속형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내국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에서 사회참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이민사회, 사회통합, 사회참여, 사회적 거리】

* 본 논문에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주저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dswin27@snu.ac.kr)

*** 교신저자, 육군3사관학교 조교수(jusillee22@gmail.com)

논문접수일(2015.8.27), 수정일(2015.9.20), 게재확정일(2015.9.20)

I. 서론

2014년 기준으로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797,618명이다. 이는 2013년 대비 14.1%(221,548명)가 증가한 수치로서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들은 매년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유입 및 유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외국인수는 지속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e-나라지표, 2015).

이처럼 국내에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2005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정이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정책과제로 천명하면서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윤상우·김상돈, 2010).¹⁾ 또한 이런 한국의 이주민들 증가와 함께 관련된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들이 제시되어 왔다(곽준현, 2007; 윤인진, 2008; 이명진 외, 2010).²⁾

비록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³⁾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배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윤인진 외, 2011). 특히, 집단주의적 응집력이 강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 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신뢰가 높지만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경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과 다른 집단인 이주민 등에 대한 관용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금희조, 2011).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이 실시한 ‘외국인·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1) 다문화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들로는 김이선 외(2007), 황정미 외(2007), 유인진 외(2009), 인태정(2009), 맹진학(2009)의 연구가 있다(윤상우 외, 2010).
- 2) 그동안의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출입국 실태, 노동 및 생활조건, 인권문제 등을 분석한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국민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민의 이민자와 다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와 특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로 구분된다(윤상우·김상돈, 2010).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가치, 외국인과의 교류경험, 국민정체성과 외국인 또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민지선·김두섭, 2013).
- 3) 여러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였고 한국인의 자각 요건으로 혈통과 문화보다는 정치적 소속감과 의무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인진 외, 2011).

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 이상이 이주민들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민지선 외, 2013). 그리고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보고서(2014)에 따르면 2030세대일수록 다문화가정 증가가 한국사회의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충환·우형진, 2014).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증가할수록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이 인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이주민들을 위협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다(최효진·윤계숙, 2009; 이재완, 2013). 그러나 사회참여 등의 사회자본은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서 다른 시민들과 연계망을 형성하고 교류함으로써 호혜성, 관용, 연대감, 협동심 및 신뢰 등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연계망을 공고화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활성화의 기초가 된다(Putnam, 1995; 민영·주익현, 2007).⁴⁾

유럽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Reenskens and Wright (2013)의 연구와 한국, 중국,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이희창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단체 참여와 참여활동 등은 시민정체성에는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종족적 정체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또한 이런 시민정체성은 이민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yrne, 2011; 이희창 외, 2013).

이처럼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관용을 증가시킴으로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참여 등의 사회자본이 시민참여(송재경, 2013), 지역사회 참여(홍성모 외, 2011), 국가정체성(이희창 외, 2013), 정부성과 인식(유민이 외, 2012), 정부신뢰(박희봉 외, 2003), 정치참여(민영·주익현, 2007) 등에 미친 영향에만 한정되어 연구해 오고 있다.

4)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형하(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형하(2014)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 호혜성, 참여 등의 사회자본 중에서 신뢰만 유의미하게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회참여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거나 서명하기, 집회에 참여하기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를 통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5) 종족적 정체성은 혈통, 조상, 초기 사회화 과정 등에서 습득되는 문화적 특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민적 정체성은 한정된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충성심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권리, 의무, 가치에 기반을 둔 국가정체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인 시민참여가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실제로 내국인과 외국인들간의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킴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자본(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회자본은 사회적 교류 및 교환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관계적 지원망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포함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관계망이 갖는 개인에 대한 지지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특히, 포르테스(Portes, 1998)와 퍼트남(Putnam, 1993; 1995) 등에 의해서 발전된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며 이런 관계유지와 강화를 통해서 잠재적 가치가 증가하는 관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이준웅 외, 2005).⁶⁾

이런 사회자본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초기에는 사회자본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 연구되어 오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자본이 지역발전과 정책발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들이 증가해오고 있다(진광훈, 2012; 김혜선, 2014).

특히, 사회자본의 핵심을 사회적 네트워크로 보고 있는 퍼트남(Putnam, 2000; Norris, 2004; Williams, 2006) 등은 사회적 자본을 연계형 유형(bridging)과 결속형 유형(bond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구분은 사회자본이 반드시 긍정적인 기제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혜선, 2014).

6) 콜맨(Coleman, 1988)은 사회자본의 관계적 속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즉, 명시적으로 사회자본과 신뢰를 연결시켜 정의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공동체 수준에서 발휘되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사회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원으로서 의무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 정보 취득의 채널, 사회적 규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퍼트남(Putnam, 1995)은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사회자본을 ‘관계망이나 규범, 신뢰와 같이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도록 하는 사회적 삶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이 사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연결체로서 기능하며 궁극적으로 규범이나 신뢰를 통해서 시민적 목표를 위해 봉사하는 하나의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수준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이준웅 외, 2005).

예를 들면, 결속형 유형은 사회적 배경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동질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결속적 유형은 질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고 강한 교류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이희창·강정희, 2013). 반면에 연계형 유형은 사회·정치적 배경이 이질적인 구성원들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공적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 시민권 함양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연계형 유형은 이질적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금희조, 2011).

2.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수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거리에 대한 논의

이주민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회적 거리’이다. 사회적 거리는 물리적 공간상의 두 지점 사이를 거리를 재는 것처럼, 측정 가능한 어떠한 사회적 ‘거리’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 보가더스(1933)가 실증연구에 이 개념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개인들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결혼을 통해 가까운 친척으로 받아들일겠다는 항목부터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항목까지를 1점부터 7점까지 놓고 문항 간의 위계적이고 단계적인 관계와 각 문항의 누적성을 전제하는 보가더스 척도는 소수민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는데 많이 활용되어 왔다(이명진 외, 2010).⁷⁾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민족정체성과 자국민중심주의이다(홍봉선·아영아, 2011). 특히, 국민정체성⁸⁾은 국민적 유대감이 소수자와 이주자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

7)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 개념을 활용하여 소수 인종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것으로는 김상학(2002), 김진희(2007), 김혜숙(2007), 양계민(2009), 인태정(2009), 황미애(2009)의 연구가 있다(이명진 외, 2010).

8)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 구성원들의 ‘국민 됨(nationhood)’에 대한 생각 및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국민정체성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 또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정체성은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로서 특정 국가 또는 국민과 관련하여 자신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한다. 이런 국민정체성은 시민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배제와 차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이주자들에 대한 성별, 인종, 출신민족, 계급 등을

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응답자인 개개인이 국가구성원을 자신이 속한 집단(in-group)인 국민과는 동일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타자(out-group)인 이주민들에게는 거리를 두는 포섭과 배제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윤인진 외, 2011).

2) 이주민의 수용에 대한 선행연구

이주민들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윤인진 외, 2011). 이는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받아들이는 인정의 정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상우 외, 2010). 이런 다문화 수용성은 이주민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주자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윤인진 외, 2011). 그동안 이주민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관과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성향, 유교적 가치, 자민족 중심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여성들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 정치 성향은 다문화 수용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유교적 가치관은 다문화 수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이주민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민족 중심주의는 이주민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상우·김상돈, 2010).

또한 국민정체성을 혼합형, 종족형, 시민형, 다원형으로 구분하여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⁹⁾, 혼합형이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시적 측면에서는 다원형이, 합법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에서

통하여 자국민인 ‘우리’와 이주민인 ‘그들’로 구분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한 나라의 ‘국민 됨’의 범위를 규정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윤인진 외, 2011).

9) Hochman et al(2008)을 참조하여 시민적 요인과 종족적 요인에 따라 국민정체성 인식을 유형화 하고 있다. 즉, 시민적 요인과 종족적 요인이 모두 강하면 혼합형(mixed), 종족적 요인이 강하고 시민적 요인이 약하면 종속형(ethnic), 반면에 종족적 요인은 약하고 시민적 요인이 강하면 시민형(civic), 그리고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이 모두 약하면 다원형(plural)으로 구분하고 있다(윤인진 외, 2011).

는 시민행이 가장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인진 외, 2011).

둘째,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과 접촉이 증가하면 이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객관적이 증거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원숙연, 2011). 또한 해외여행 경험과 해외에 지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유진, 2013). 그러나 대학생들의 경우 이주노동자와의 접촉경험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충완·우형진, 2014). 또한,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원숙연, 2011; 민지선·김두섭, 2013). 이는 단순 접촉빈도 보다는 접촉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송유진, 2013).

셋째,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를 통한 시민성 교육이나 사회화 기능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 형성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이용량은 다문화에 대한 관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시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금희조, 2011).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외국인 이주정책과 다문화 가족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완, 2013).

3. 연구가설

사회자본과 시민적 관용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높은 주의 시민들은 사회적 자본이 낮은 주의 시민들에 비해서 시민적 자유에 보다 관대하며 남녀평등과 인종 평등을 훨씬 더 굳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주민들이 나 홀로 불링을 치는 공동체들은 미국에서 관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Putnam, 2000). 이는 어떤 개인이 지역 모임이나 사교 단체 활동을 통해서 연계망을 강화시키는 경우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 경험을 통해서 대인적 신뢰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준웅 외, 2005).

또한, 개인의 이질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용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Ikeda and Kobayashi, 2009). 비록 이질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충돌이 존재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과 관점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숙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준웅 외, 2007; 금희조, 2011; Huckfeldt et al, 2004). 따라서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관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킴으로

써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연구가설 1: 내국인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감소(이주민 수용에 대한 태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회참여의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사회자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퍼트넘(Putnam, 1993)에 따르면 수평적 신뢰는 민주주의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혈연, 학연, 지연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신뢰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박희봉 외, 2003).

또한 사회적 참여는 연계형(bridging) 사회참여와 결속형(bonding) 사회참여로 구분된다. 비록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참여 모두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지만(Putnam, 2000),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등이 동질적인 구성원들로 형성되는 결속형 사회참여의 경우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편협한 태도를 강화하여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사회·정치적 배경이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형성되는 연계형 사회참여의 경우는 공적 토론을 통해 민주적 시민권 함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금희조, 2011).¹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참여의 성격에 따라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수용)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즉, 연계형 사회참여를 의미하는 종교모임, 문화단체, 기타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은 이주민들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결속형 사회참여인 동창모임이나 친목단체 활동 등은 이주민들의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연구가설 2: 사회참여에 따른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사회참여 성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연구가설 2-1: 종교모임(교회, 절 등)이나 단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연구가설 2-2: 문화단체(스포츠, 레저모임 등)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10)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도 한국 시민들의 사회참여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준웅 외(2005)은 개인 회원 자격이 귀속적 성격을 갖는 향우회, 동창회 등과 가입적 성격을 갖는 동호회, 사회활동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박희봉 외(2003)도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등 혈연, 지연, 학연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참여와 학부모회, 지역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 환경 및 여성단체 등 가입과 참여가 개방된 단체참여로 구분하고 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연구가설 2-3: 기타 모임이나 단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연구가설 2-4: 동창모임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연구가설 2-5: 친목단체 모임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내국인들의 사회참여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가 2012년에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본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은 2011년 2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실시한 이후 무작위추출 방법을 통해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길정아,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수는 총 2,047명이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들의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방식(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한 식(1)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_1 \cdot P_1 + \beta_2 \cdot P_2 + \beta_3 \cdot P_3 + \beta_4 \cdot P_4 + \beta_5 \cdot P_5 + \sum_m \delta_m X_{mi} + \varepsilon_i \text{ -----(식 1)}$$

Y_i = 응답자 i의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합

ΣP_i = 응답자 i의 사회참여(종교모임, 문화단체, 기타모임활동, 동창모임, 친목단체)

ΣX_i = 응답자 i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

2. 변수 및 변수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 5개 국가 이주민들에 응답자들의 사회적 거리에 대한 총합의 로그(log)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이 질문되었다. ‘귀하는 한국으로 온 이주자들과 아래와 같은 형태의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들을 읽고 찬성 또는 반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① 북한이탈주민(새터민) ② 중국동포(조선족) ③ 중국인(한족), ④ 일본인 ⑤ 미국인을 대상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보기로 질문되었다. 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②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③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④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⑤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⑥ 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에 대한 질문문항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①번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⑥번의 ‘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으로 문항 순위가 올라갈수록 점차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감소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했다.¹¹⁾ 이를 통해서 응답자 개인들의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수치로 계산해보면, 각각의 국가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최하점은 0점에서 최고점은 21점이다. 따라서 이들 5개 국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대한 총합은 최하 0점에서 최고 105점이 된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대표적인 방식인 사회참여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참여는 ① 교회, 절 등 종교모임이나 단체, ② 스포츠,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③ 기타 모임이나 단체, ④ 동창모임, ⑤ 친목단체 등에서 응답자 개인이 각각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 정도이다.¹²⁾

11) 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찬성=1점, 반대=0점), ②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찬성=2점, 반대=0점), ③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찬성=3점, 반대=0점), ④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찬성=4점, 반대=0점), ⑤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찬성=5점, 반대=0점), ⑥ 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찬성=6점, 반대=0점). 이는 보가더스 척도를 응용한 것이다.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다섯 개에서 일곱 개의 진술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다른 집단에 대한 친밀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식으로 배열된다. 즉,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에 7점을 주고 ‘결혼 하겠다’에 1점을 둔다(정기선 외,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12) 이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 종류의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지,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에는 소속되었던 적이 있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월수입, 정치이념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분도 통제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www.immigration.go.kr) 2015년 4월호에 따르면, 2015년 4월 30일 현재 등록외국인수는 1,104,876명이다. 이 중 경기도(357,157명)와 서울(270,926명)이 전체 등록 외국인의 56.8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1)와 기타 지역(=0)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기초 통계치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지표

구분	변수명	측정지표	척도
종속 변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응답자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① 북한이탈주민, ② 중국동포(조선족), ③ 중국인(한족), ④ 일본인, ⑤ 미국인들과 아래와 같은 형태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응답인의 생각(찬성=1, 반대=0)에 대한 총점 1) 1점=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2) 2점=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3) 3점=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4) 4점=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5) 5점=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6) 6점=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독립 변수	사회 참여	교회, 절 등 종교모임/단체	응답자의 모임 또는 단체 소속 활동정도
		스포츠, 레저모임 등 문화단체	1)=소속된 적이 없다 2)=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 3)=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4)=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 한다
		기타모임/단체	
		동참모임 친목단체	
통제	성별	응답자 성별	1=남자, 0=여자

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친구가 있는 경우, 소속된 적은 없지만 친한 친구 있음 란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로 되어있다.

또한, 사회참여에 대한 원래 설문문항은 ① 시민운동단체, ②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 조합, ③ 교회, 절 등 종교모임이나 단체, ④ 스포츠, 레저 모임 등 문화 단체, ⑤ 동창모임, ⑥ 향우회, ⑦ 친목단체, ⑧ 기타 모임이나 단체 등의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① 시민운동단체, ②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 조합, ⑥ 향우회 등은 소속된 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5개 문항에 대해서만 사회참여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을 다음과 같이 재코딩 했다. ① 소속된 적이 없다(=1), ②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2), ③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3), ④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4). 그리고 설문지 응답문항에는 본문의 ①②③④문항과 ⑤소속된 적은 없지만, 친한 친구 있음 문항 총 5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⑤문항은 제외하고 있다.

변수	연령	응답자 연령	1=19-29세, 2=30-39세, 3=40-49세, 4=50-60세, 5=60세 이상
	교육수준	응답자 교육수준	0=무학, 1=초등 졸, 2=중졸, 3=고졸, 4=전문대 졸, 5=대졸, 6=대학원(석사/박사) 졸
	가계 월 소득	응답자 가계 소득	1=100만원 이하, 2=100-199만원, 3=200-299만원, ... 7=600-699만원, 8=700-799만원, 9=800만원 이상
	정치이념	진보/보수	1=매우 진보, ... , 10=매우 보수
	지역	서울·경기유무	1=서울·경기도·인천, 0= 그 외 지역

〈표 2〉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기초 통계치 (표본수=2,047)

구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ln(사회적 거리)	1990	3.86	.81	0	4.65
	교회, 절 등 종교모임/단체	1919	1.94	1.21	1	4
독립변수	스포츠, 레저모임 등 문화단체	1953	1.67	1.08	1	4
	기타모임이나 단체	1932	1.92	1.23	1	4
	동창모임	1969	2.48	1.26	1	4
	친목단체	1993	2.67	1.31	1	4
	성별	2047	.497	.500	0	1
통제변수	연령	2047	3.03	1.40	1	5
	교육수준	2046	3.53	1.30	0	6
	가계월소득	2037	4.11	1.76	1	9
	정치이념	2045	4.97	1.88	0	10
	서울·경기 유무	2047	.497	.500	0	1

IV.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는 내국인들의 사회참여가 이주민에 대한 수용정도인 사회적 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참여를 종교모임, 문화단체, 동창모임, 친목단체, 기타 모임이나 단체로 구분하여 사회참여의 종류에 따라서 이주민들의 수용에 대한 차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주민 수용에 대한 태도가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의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회참여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친 영향

변수명	사회적 거리(총합)					
	[1]	[2]	[3]	[4]	[5]	[6]
종교모임/단체 (교회, 절 등)	.049** (.016)					.048** (.017)
문화단체 (스포츠, 레저)		.040* (.018)				.040* (.020)
기타모임이나 단체			.051** (.015)			.052** (.017)
동창모임				-.032* (.015)		-.029 (.018)
친목단체					-.027+ (.014)	-.040* (.018)
성별	.067+ (.039)	.031 (.038)	.046 (.038)	.047 (.038)	.049 (.038)	.063 (.041)
연령	.032+ (.017)	.038* (.017)	.029+ (.017)	.043* (.017)	.047** (.017)	.037* (.019)
교육수준	.074*** (.020)	.080*** (.019)	.073*** (.020)	.019*** (.019)	.087*** (.019)	.073*** (.021)
가계월소득	.014 (.012)	.009 (.012)	.013 (.012)	.015 (.012)	.017 (.012)	.012 (.013)
정치이념	-.022* (.010)	-.017+ (.010)	-.021* (.010)	-.025* (.010)	-.021* (.010)	-.018* (.011)
서울·경기유무	-.168*** (.038)	-.183*** (.038)	-.165*** (.038)	-.181*** (.0384)	-.197*** (.038)	-.151*** (.0416)
상수항	3.52*** (.115)	3.52*** (.115)	3.52*** (.115)	3.62*** (.114)	3.60*** (.114)	3.51*** (.122)
표본수	1853	1885	1864	1904	1925	1685
F-값	8.64	8.47	9.60	9.25	9.21	6.52
R-squared	0.0317	0.0306	0.0350	0.0330	0.0325	0.0411

a) () : 괄호 안은 standard error임.

b) +p<.10, *p<.05, **p<.01,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위의 <표 3>), 내국인들의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수용)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종교모임(모델 [1]), 문화단체(모델 [2]), 기타모임이나 단체 활동(모델 [3])이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유의미하게 감소(수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동창모임(모델 [4])이나 친목단체(모델 [5])는 활동이 활발할수록, 오히려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연계형 사회참여의 경우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일차적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식적이고 이차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Putnam, 1993)와 개인이 단체, 모임, 협회를 통해서 다양한 회원을 접촉하는 경우(Paxton, 1999)에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좋은 사회자본이 생성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박희봉 외, 2003). 또한 결속형 사회참여의 경우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편협한 태도를 강화하여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한 적대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금희조, 2011)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참여 뿐만 아니라 통제변수들도 사회적 거리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고 있다. 먼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위협의식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명진 외, 2010; 원숙연, 2011; 이자형·김경근, 2012; 이형하, 2014). 또한 보수적인 정치성향일수록, 사회적 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보적 성향일수록 사회적 거리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진보적 정치성향일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친밀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윤상우·김상돈, 2010; 윤인진 외, 2011).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거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이형하, 2014)는 동일한 결과이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에 대한 수용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론이다(송정미, 2010; 송유진, 2013).¹³⁾

특히, 거주 외국인 비율이 전체 57%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주 지역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원숙연, 2011; 민지선 외, 2013).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계형 사회참여와 결속형 사회참여가 국가별 이주민들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 집

13) 하지만 연령의 경우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다. 즉, 연령의 증가는 전체 외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명진 외, 2010; 민지선 외, 2013). 또한 연령은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의 쟁점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이주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다문화가족 정책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완, 2013).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완전한 사회통합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젊은 층에서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승진, 2010). 이처럼 이주민들의 사회적 거리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변수는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단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미국인, 새터민, 조선족, 서아시아인, 몽골인 등에 대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명진 외, 2010). 즉, 중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캐나다인, 일본인, 유럽인에 대한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으로써 선진국 선호의식과 출신국가에 따른 친밀도·거리감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상우·김상돈, 2010; 민지선 외, 2013).

〈표 4〉 사회참여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친 영향: 국가별

변수 명	사회적 거리					
	새터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총합
	[1]	[2]	[3]	[4]	[5]	[6]
종교모임/단체 (교회, 절 등)	.038* (.017)	.038+ (.021)	.041+ (.023)	.062** (.022)	.042* (.019)	.048** (.017)
문화단체 (스포츠, 레저)	.039+ (.0210)	.040 (.024)	.044 (.027)	.095*** (.026)	.048* (.023)	.040* (.020)
기타모임이나 단체	.048** (.018)	.074*** (.021)	.070** (.023)	.021 (.022)	.032+ (.019)	.052** (.017)
동창모임	-.024 (.189)	-.014 (.022)	-.036 (.024)	-.023 (.023)	-.040* (.020)	-.029 (.018)
친목단체	-.044* (.018)	-.057** (.021)	-.059* (.024)	-.027 (.022)	-.023 (.020)	-.040* (.018)
성별	.136** (.042)	.106* (.050)	.105+ (.056)	.015 (.053)	.044 (.046)	.063 (.041)
연령	.050* (.019)	.049* (.023)	.008 (.025)	-.034 (.024)	-.019 (.021)	.037* (.019)
교육수준	.051* (.021)	.039 (.025)	.045 (.028)	.105*** (.026)	.076** (.023)	.073*** (.021)
가계월소득	-.013 (.013)	-.014 (.015)	-.011 (.017)	.012 (.016)	.029* (.014)	.012 (.013)
정치이념	-.018 (.011)	-.022 (.013)	-.030* (.015)	-.009 (.014)	-.016 (.012)	-.018* (.011)
서울·경기유무	-.121** (.042)	-.269*** (.049)	-.282*** (.055)	-.274*** (.052)	-.123** (.045)	-.151*** (.0416)
상수항	2.19*** (.127)	2.10*** (.150)	2.15*** (.168)	1.86*** (.158)	2.09*** (.137)	3.51*** (.122)
표본수	1593	1540	1525	1567	1639	1685
F-값	5.34	6.57	5.99	9.68	6.88	6.52
R-squared	0.0358	0.0452	0.0418	0.0641	0.0444	0.0411

a) () : 괄호 안은 standard error임.

b) +p<.10, *p<.05, **p<.01,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위의 <표 4>), 통계적 유의성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고 있을 뿐 연계형 사회참여인 종교모임, 문화단체, 기타모임이나 단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새터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 모든 국가의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결속형 사회참여인 동창모임과 친목단체 활동이 증가할수록, 이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주민들의 출신국가별로 내국인들이 인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국인들의 연계형 사회참여는 통계적 유의성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결속형 사회참여는 모든 국가의 이주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들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국인들이 인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연계형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주민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인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내국인들이 인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수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방식인 내국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들이 연계형 사회참여인 종교모임, 문화단체, 기타모임이나 단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계형 사회참여의 경우 이질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충돌이 존재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과 관점에 관해 더 많은 이해와 숙고를 하게 됨으로서 이주민

들에 대한 관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국인들이 결속형 사회참여인 동창모임과 친목단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질적으로 구성되는 결속형 사회참여의 경우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편협한 태도를 강화하여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새터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으로 구분하여 연계형 사회참여와 결속형 사회참여가 이들의 사회적 거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연계형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의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반면 결속형 사회참여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국인들의 연계형 사회참여는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정도는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한정하여 개인적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적 가치관과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이주민들과의 접촉, 거주지역 외국인들의 비중, 외국인에 대한 신뢰에 한정하여 연구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수단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 이주민들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참여를 결속형 사회참여와 연계형 사회참여로 구분하여 사회참여의 특성에 따라 내국인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연계형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내국인과 이주민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민들의 밀집지역에 내국인과 이주민들 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과 도입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법과 제도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각 중앙부처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센터들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게다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주 외국인 지원표준조례안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

에 따라 조례를 마련한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상으로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조례상에 담긴 시책들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사례를 많지 않은 실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따라서 내국인과 이주민들 간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한국인 주민의 다문화 사회 적응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다문화 지원정책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인 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따라서 다문화 마을축제 등 실제로 외국인 및 내국인을 망라한 지역주민들의 사회연결망을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예를 들면, 서울시는 내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다문화마을공동체’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외국인 쉽게 접근이 편리한 곳에 사랑방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내·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마을을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내·외국인 주민간 친밀도 제고 위한 자조모임,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교류, 마을의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3.05.07.).

셋째, 이민자 자조모임 네트워크 확대와 이들 이민자 자조모임이 내국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현재 결혼이주자 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근거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시책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공동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내·외국인간 공동체 형성이 아니라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자 모임의 지원을 통해서 결혼이주자들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따라서 이민자 자조모임 네트워크가 내국인들과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의 경우 이주민 자조집단을 지원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집단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지원 기준이 된다. 특히, 2012년 3000개의 이주민 자조집단 중에서 시의 예산 지원받는 자조집단은 100개 미만으로 시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자조집단간 경쟁이 치열하다. 시의 자조집단 지원기준은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이 공동 운영하는 단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 이주민 자조집단이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리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넷째, 내국인과 이주민들 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한국인 주민의 다문화 사회 적응 프로그램 마련, 이민자 자조모임 네트워크 확대와 이들

이민자 자조모임이 내국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주기 위한 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신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기금은 외국인의 입국·체류 허가 등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범칙금, 과태료를 별도 기금으로 모아 재한외국인 인권 옹호 및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외국인 낸 돈으로 이뤄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15.01.30.)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이 설립되면 이 기금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전문 인력과 난민 등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 사회통합기금’과 같은 내국인과 이주민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계형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들과 정책적 제도 도입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들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 및 부처 간 역할 분담 등 재조정 등을 통하여 정부재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지출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참고문헌

- 곽준혁. (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1.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연계형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4): 162-186.
- 김혜선. (2014). 사회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지선·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 민영·주익현. (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적 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6): 190-218.

14)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 관리 및 사업관리체계 미흡, 비효율적 자원배분, 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성과가 불분명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질적 결혼비자 심사가 불충분하고 입국 후에는 소득·지원기간 제한 없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자립·정착지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자녀 등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 및 성과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미흡, 그리고 수요 고려가 미흡한 다문화센터 불균형 설치로 인하여 지역별 과소·과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업점전문성과 효과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관리를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 및 부처간 역할분담 등 재조정 등을 통하여 정부재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지출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06.01.).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송유진. (2013).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3): 1-19.
- 우승환·우형진. (2014).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 185-227.
- 유민이·문상호·이숙중. (2012). 사회자본의 정부성과 인식에 대한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111-145.
-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143-192.
- 원숙연. (2011). 외국인 및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지형분석: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시도. 「국가정책연구」, 25(4): 27-55.
- 원숙연·박진경. (2009).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201-224.
- 이명진·최유정·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영하. (2014).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11): 193-202.
- 이자형·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163-192.
- 이재완. (2013). 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 지지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2(4): 285-315.
-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대중 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9(3): 234-262.
- 이희창·장정희. (2013).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분석: 한·중·미 3국가 비교. 「한국보훈논총」, 12(2): 7-45.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487권 0호, 2013: 1-184.
- 행정안전부. (201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연구」. 2012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211000-000430-01.
- 홍봉선·아영아. (2011).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165-187.
- 홍성모·황진수·류지성. (2011). 사회자본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9: 291-319.
- Byrne, J. (2011).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A Multicreeda. America. Politics & Policy, 39(4): 485-514.

- Huckfeldt, R., Mendez, J. M., and Osborn, T. (2004). Disagreement, Ambivalence, and Engagement: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Networks. *Political Psychology*, 25(1): 65-95.
- Ikeda, K., and Kobayashi, T. (2009). Making Democracy Work via the Functioning of Heterogeneous Personal Network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Japan Election Study. In R. M Hsung, n. Lin, & R. Breiger (Eds.), *Contexts of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in Markets, Communities and Families*(pp 72-90). London: Routledge.
- Norris, P. (2004). The Bridging and Bonding Role of Online Communities. In P. N. Howard & S. Jones (Eds.), *Society Online: The Internet in Context*(pp. 31-43). Thousand Oaks, CA: Sage.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 664-683.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eeskens, T., and Wright, M. (2013). Nationalism and the Cohesive Society: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Interplay Among Diversity, National Identity, and Social Capital Across 27 European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6(2): 153-181.
- Williams, D. (2006). On the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2): 593-628.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Engagement on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Daesung Jun & Jusil Lee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study of Korea immigration in recent years as a result of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coming to South Korea. A noticeable trend in the research on Korea immigration is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may influence Korean perception of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Yet, little is known about ways of decreasing social distance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engagement on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The authors find that bridging social engagement decreases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while bonding social engagement increases it. The research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generating social integration and developing Korea's immigration policy, especially emphasizing that the types of social engage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facilitating immigrant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Keywords: Immigration society, Social integration, Social engagement, Social distance】